

손명호, 영암 추석장사 씨름대회서 2년여 만에 백두장사 탈환

전남 영암실내체육관서 '위더스제약 2019 추석장사 씨름대회'

'삭발 투혼'으로 백두급 결승서 윤성민 3-0으로 꺾고 꽃가마

손명호(의성군청)가 '춘추전국시대'를 맞은 백두장사 타이틀 경쟁을 뚫고 2년여 만에 최강자 자리에 복귀했다.

손명호는 15일 전남 영암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위더스제약 2019 추석장사 씨름대회' 백두급(140kg 이하) 장사 결정전(5전 3승제)에서 윤성민(영암군민속씨름단)을 3-0으로 물리쳤다.

이로써 손명호는 2017년 6월 단오 대회 우승 이후 2년 3개월 만에 백두장사에 복귀했다.

2016년 추석 대회 우승을 포함하면 개인 통산 세 번째 백두장사 타이틀이다.

윤성민은 8강에서 정경진(울산동구청), 4강에서 정창조(수원시청)를 각각 꺾는 돌풍을 일으키

며 결승에 올랐지만, 손명호의 벽을 넘지 못했다.

머리를 짧게 깎고 나온 손명호는 4강에서 임진원(영월군청)을 2-0으로 일축하고 결승에 올라 영암군민의 응원을 받는 윤성민과 만났다.

손명호가 첫판에서 먼저 공격을 시도하던 윤성민을 덧걸이 기술로 경기 시작 2초 만에 눌러 기선을 잡았다.

기세가 오른 손명호는 둘째 판에서 전광석화 같은 들배지기로 윤성민을 넘겨 게임 스코어 2-0으로 앞섰다.

손명호는 세 번째 판에서도 기습적인 들배지기로 윤성민의 허점을 파고들어 2년여 만의 백두장사 우승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손명호는 지난 15일 전남 영암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위더스제약 2019 추석장사 씨름대회' 백두급(140kg 이하) 장사 결정전(5전 3승제)에서 윤성민(영암군민속씨름단)을 3-0으로 물리쳤다. /연합뉴스



살아난 출루머신 추신수 4출루 맹타... 이틀 동안 7출루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37·사진)가 시즌 막판 무서운 타격감을 과시하고 있다. 추신수는 지난 16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오를랜드 애슬레틱스와 홈 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3안타 몸에 맞는 공 1개를 기록하며 '4출루'에 성공했다.

그는 9경기 연속 출루, 3경기 연속 멀티 출루를 기록했다. 특히 전날 오를랜드전에서 3출루를 기록한 데 이어 이날도 멀티출루에 성공하며 이틀 동안 무려 7번의 출루를 기록했다. 추신수의 시즌 타율은 시즌 타율은 0.264에서 0.268(530타수 142안타)로 올랐고, 출루율은 0.365에서 0.370으로 상승했다.

텍사스는 추신수의 맹활약에도 1-6으로 패했다. /연합뉴스

'윌리안 PK 결승골' 광주, 아산 3-1로 꺾고 5경기 무승 '탈출'

프로축구 K리그2(2부리그) 광주FC가 아산 무궁화의 추격을 뿌리치고 6경기 만에 승리를 거두고 선두를 질주했다.

광주는 지난 15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2 2019 27라운드 홈 경기에서 '브라질 듀오' 윌리안, 하청요의 연속골과 임민혁의 썩기 골을 앞세워 오세훈이 만회 골을 넣은 아산을 3-1로 물리쳤다.

이로써 광주는 최근 5경기 연속 무승(4무 1패) 부진에서 벗어나며 시즌 15승 10무 2패(승점 55)를 기록해 2위 부산(승점 49)과 간격을 좁혀 6 차로 벌렸다.

아산의 승리는 7월 27일 수원FC전 2-0 승리 이후 50일 만이다.

특히 광주는 직전 라운드에 안산에 1-2로 달미를 잡았던 충격에서 벗어나며 선두 독주에 재시동을 걸었다. 광주는 득점 부문 1위(16골)인 외국인 골잡이 펠리페와 주전 수비수 이요뜸이 퇴장과 경고 누적으로 결장했다.

대신 김주공이 최전방을 맡고 브라질 출신의 미드필더 하청요가 7월 초 영입 후 처음으로 선발 출장했다.

아산은 오세훈을 원톱으로 세우고, 김레오와 박세직을 2선에 배치해 맞불을 냈다.

광주가 안방에서 초반 적극적인 공세로 주도권을 잡았지만 좀처럼 득점포는 터지지 않았다.

아산은 전반 26분 오세훈이 김레오의 스루패스를 받은 후 왼발로 강하게 찰지던 왼쪽 골대를



아산전에서 페널티킥을 넣고 기뻐하는 광주의 윌리안(오른쪽). /연합뉴스

안양, 조규성 멀티골로 안산에 3-1 승리... 수원-부천은 1-1 무승부

강타했다.

광주도 전반 38분 이시영의 킥패스를 받은 윌리안이 왼쪽 골지역에서 반대편을 보고 감아 찼지만 공이 오른쪽 골대를 살짝 벗어났다.

공세의 수위를 높인 광주가 마침내 아산의 골문을 열어젖혔고, 하청요가 해결사로 나섰다.

광주의 윌리안이 전반 42분 왼쪽 골라인까지 파고든 뒤 공을 뒤로 빼줬고, 하청요가 강한 왼발

슈팅으로 왼쪽 골문을 갈랐다. 하청요는 K리그 무대 데뷔골을 선제골로 장식했다.

전반을 0-1로 뒤진 아산이 후반 들어 거센 반격으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아산은 후반 6분 오세훈이 박성우의 오른쪽 크로스를 헤딩골로 연결해 1-1로 균형을 맞췄다.

승리가 절실한 광주는 공세를 강화했고, 후반 30분 상대 수비수 박성우의 핸드볼 파울로 페널티킥을 얻었다.

선제골 주인공인 윌리안이 키커로 나서 침착하게 왼쪽 골문 구석으로 차 넣어 2-1을 만들었다.

광주는 후반 43분 임민혁이 아크 정면 중거리 슈팅으로 썩기 골을 뽑으면서 3-1 승리를 완성했다.

FC안양은 조규성의 멀티 골과 알렉스의 썩기 골을 앞세워 안산 그리너스를 3-1로 꺾고 4위에서 3위로 한 계단 올라섰다.

반면 최근 3연승 중이던 안산은 안양에 일격을 당해 4위로 한 계단 내려앉았다.

안양은 조규성이 전반 30분과 34분 잇따라 골망을 흔들면서 2-0 리드를 잡았다.

안양의 알렉스는 전반 43분 모재현의 패스를 받은 뒤 왼발 슈팅으로 골문을 꿰뚫어 3-0을 만들었다. 안산은 후반 16분 방찬준의 만회 골로 0-1 패를 면했다.

앞서 열린 경기에선 수원FC와 부천FC가 공방을 벌였지만 1-1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연합뉴스

시즌 1·2호골 손흥민, BBC '이주의 팀'



손흥민(27·토트넘·사진)이 영국 공영방송 BBC가 선정하는 잉글랜드 프로 축구 프리미어리그 라운드별 베스트 11인 '이 주의 팀'에 이름을 올렸다. BBC는 지난 16일(이하 한국시

간) 손흥민이 포함된 2019-2020시즌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 이 주의 팀을 발표했다. 공격수 출신의 축구 전문가 가스 크룩스가 뽑은 이 주의 팀은 4-3-3 포메이션으로 손흥민은 테미 에이브러햄(첼시), 사디오 마네(리버풀)와 공격수 부문에 들었다. 손흥민은 14일 오후 킥오프한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 홈 경기에서 시즌 1·2호골을 몰아넣었다. 아울러 나머지 두 골에도 관여하면서 토트넘의 4-0 대승을 이끌고 경기 최우수 선수(MOM)로 선정됐다. /연합뉴스

세계인의 밥상 이제부터 한식이입니다

세계적인 한류의 열풍은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과 이에 따른 한식의 위상을 높여 놓았습니다. 한식의 세계화는 품격높은 한식문화의 조성과 우리음식의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스스로 한식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올바른 식문화의 정립과 한식의 표준화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한식의 세계화는 이루어 집니다.

